

DMZ 세계유산등재기반조성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19.7.12 (금)
연천 전국선사박물관 강당

주최 : 경기도
주관 : 경기문화재단
후원 : 파주시·연천군

DMZ 세계유산 등재 기반 조성 사업 7월 포럼

4/5 1차 자문회의와 4/23 학술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접경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그분들이 원하는 DMZ 사업 방향의 청취를 위하여
7월 포럼을 운영하고 기록함

01_개요

02_진행

03_기조강연

04_사례발표

05_종합토론

이 개요

- 일시 2019. 7. 12(금) 13:30~17:00
- 장소 연천 전국선사박물관 강당
- 주최 경기도
- 주관 경기문화재단
- 후원 파주시·연천군
- 참석대상 민통선 주민 등 약 70명
문화유산 전문가
자연유산 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
강원도청 관계자
파주시·연천군 관계자
- 주제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02_ 진행

시간표

시간	주요내용
	사회 : 노현균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13:30~13:34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3:34~13:35	국민의례
13:35~13:50	환영사 (강현/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축사 (김광철/연천군수) 기념촬영
13:50~14:10	기조강연 (박은진/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
14:10~16:00	사례발표 (파주 및 연천 주민대표 8인)
16:00~16:05	휴식
16:05~17:05	토론
17:05	폐회

발제 및 토론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기조강연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
사례 1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공지예 파주 장단콩 초콜렛 생산업체 운영
사례 2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김동구 파주 대성동 주민 대표
사례 3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김경도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이사 (횡산리 두루미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추진)
사례 4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이완배 파주 통일촌 주민 대표
사례 5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이광길 연천 삼곶리 두루미 그린빌리지 대표
사례 6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김경숙 파주 해마루촌 주민 대표
사례 7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박영관 연천 나룻배마을 주민 대표
사례 8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생각	박종근 연천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토론	좌장 : 한 필 원 (한남대학교 교수, 이코모스코리아 사무총장) 발표자, 참석자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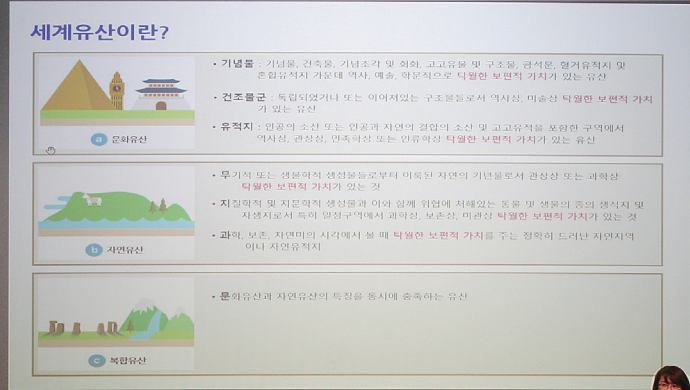
03_ 기조강연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국립생태원 박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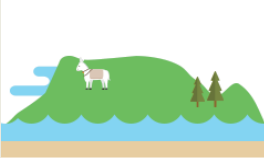


세계유산이란?



a 문화유산

-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조각 및 회화, 고고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열거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b 자연유산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c 복합유산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



3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VI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거주지나 육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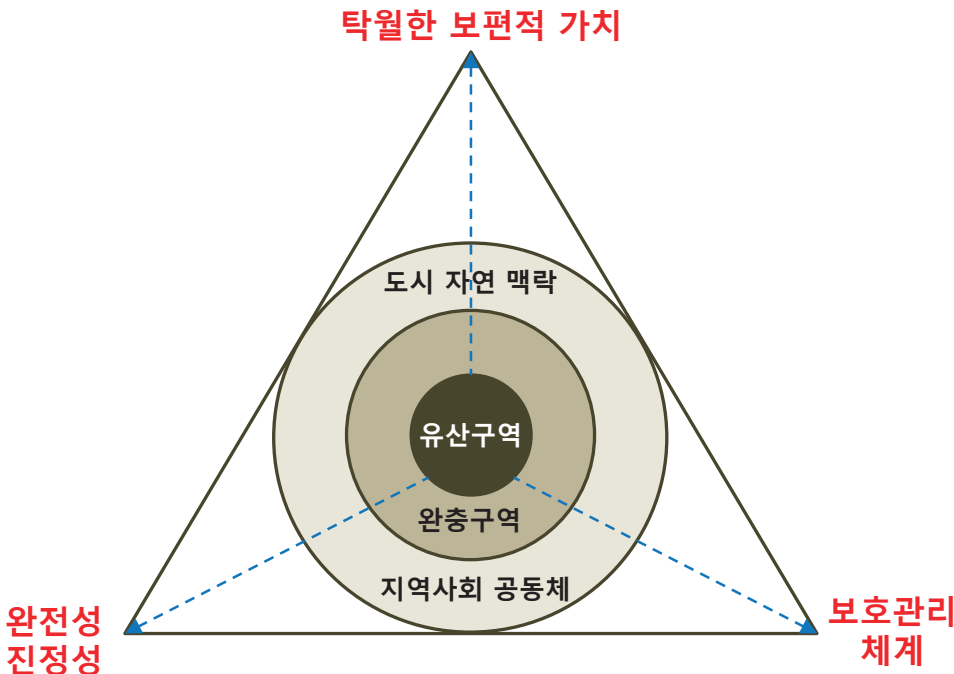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분	기준	사례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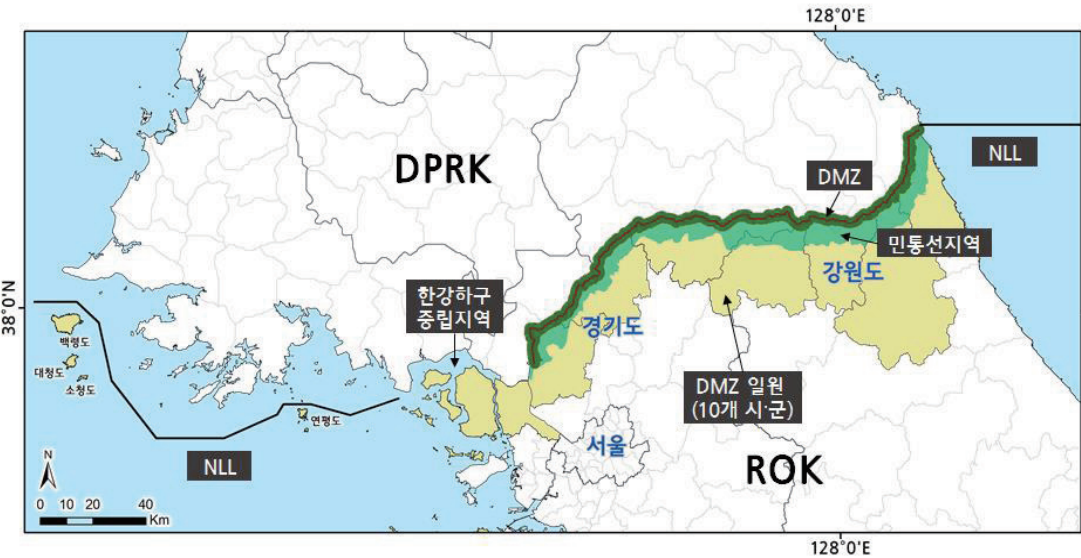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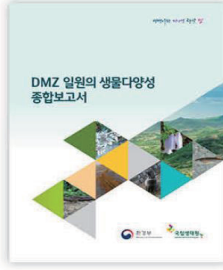
구분	면적 (km ²)	인구(명)
DMZ	910	164
민통선지역	1,142	1,737
접경 10개 시·군	7,023	1,122,498



DMZ, 멸종위기종의 피난처



DMZ, 멸종위기종의 피난처



번호	분야	우리나라		DMZ 일원			
		전체 종수	멸종위기종수	전체 종수	비율 (%)	멸종위기종수	비율 (%)
1	식물 (관속식물)	4,518	88	1,926	42.6	17	19.3
2	포유류	125	20	47	37.6	11	55.0
3	조류	527	63	277	52.6	45	71.4
4	양서파충류	53	8	34	64.2	6	75.0
5	어류	1,279	27	136	10.6	11	40.7
6	육상곤충	17,593	26	2,954	16.8	3	11.5
7	무척추 (육상곤충 외)	8,948	32	555	6.6	2	6.3
8	해조류, 고등균류	7,187	3				
합계		40,230	267	5,929	14.7%	101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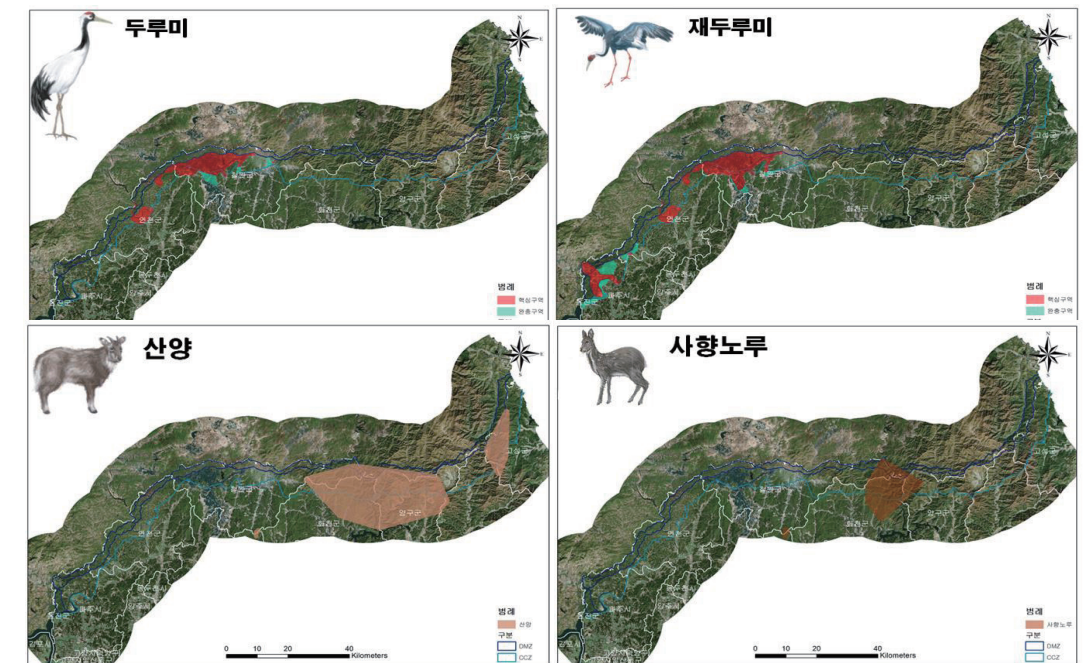
구분	DMZ 일원(남한)	백두대간호보지역
면적	1,557 km ² DMZ(남한) 425km ² , CCZ 1,133km ²	2,751 km ²
출현종* 수	5,929 종	5,239 종
멸종위기종 수	101 종	38 종

* 출현종은 8개 분류군 대상(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곤충, 관속식물)

DMZ 일원의 생태계유형 -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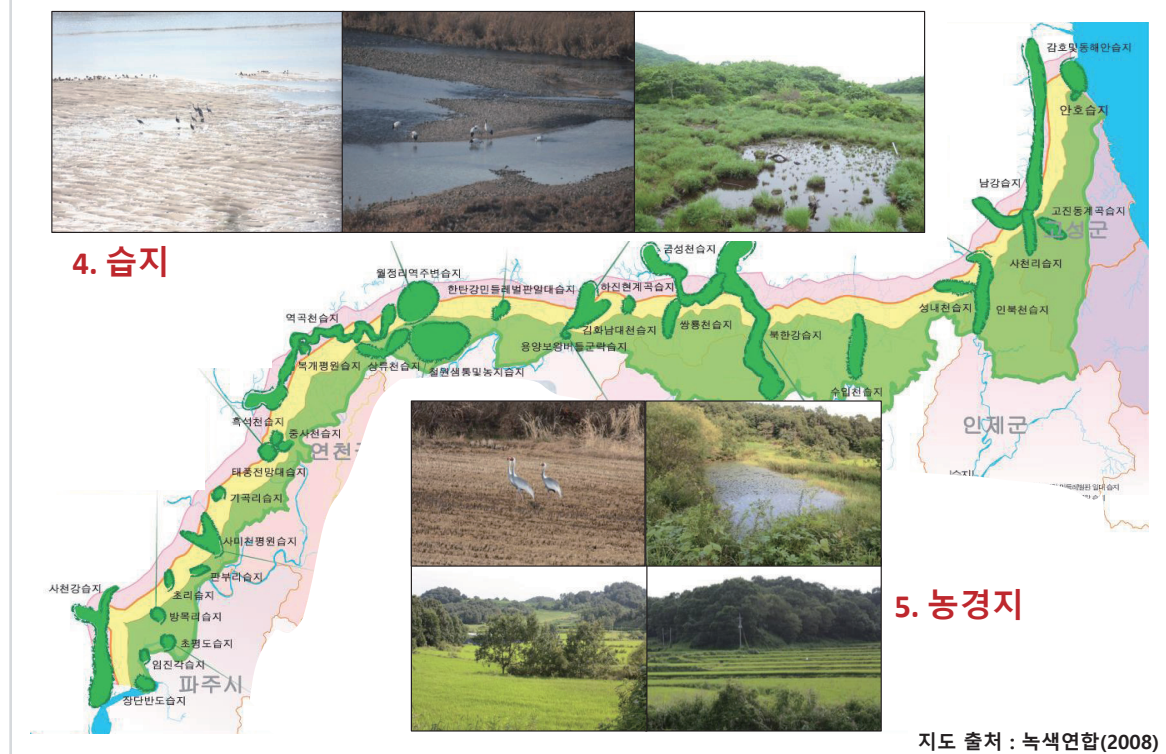


국제적 멸종위기종 (IUCN 적색목록)



12

DMZ 일원의 생태계유형- 습지, 농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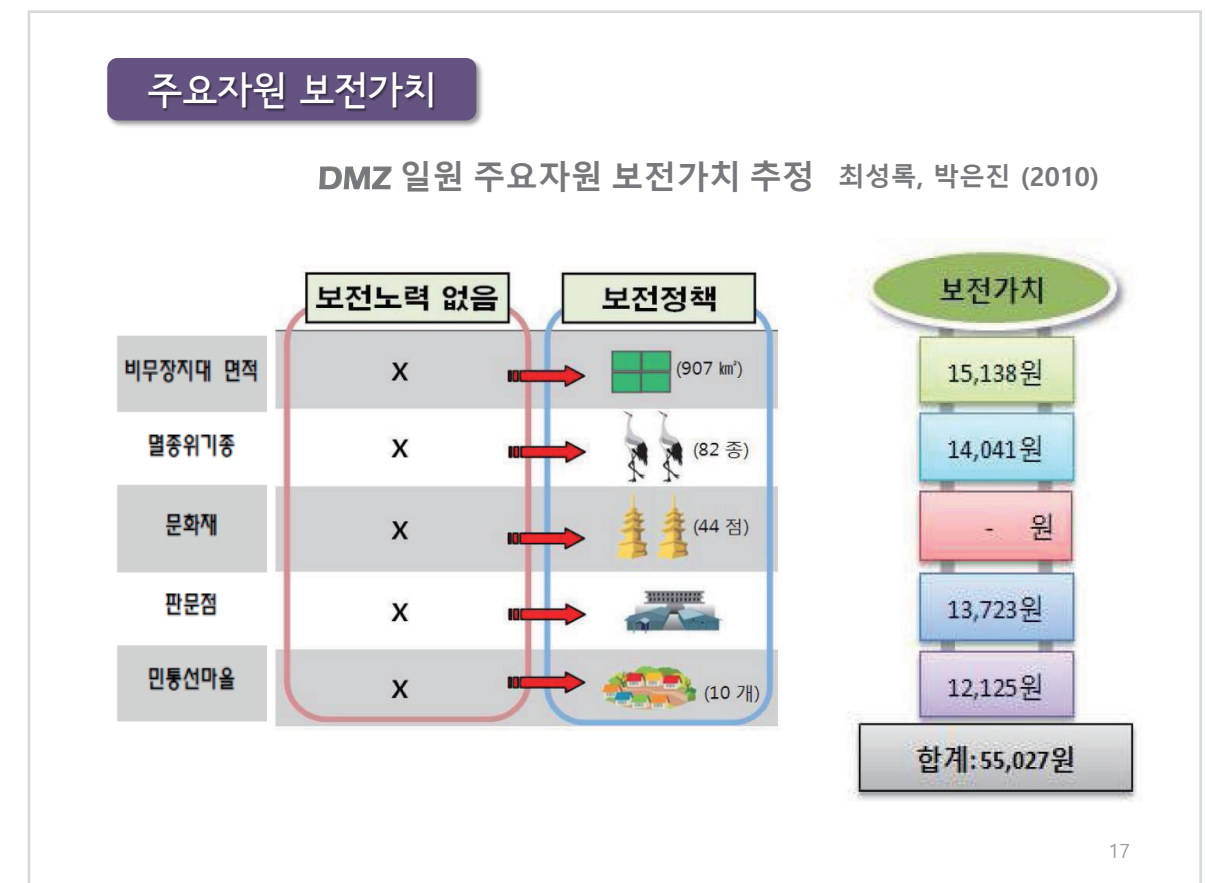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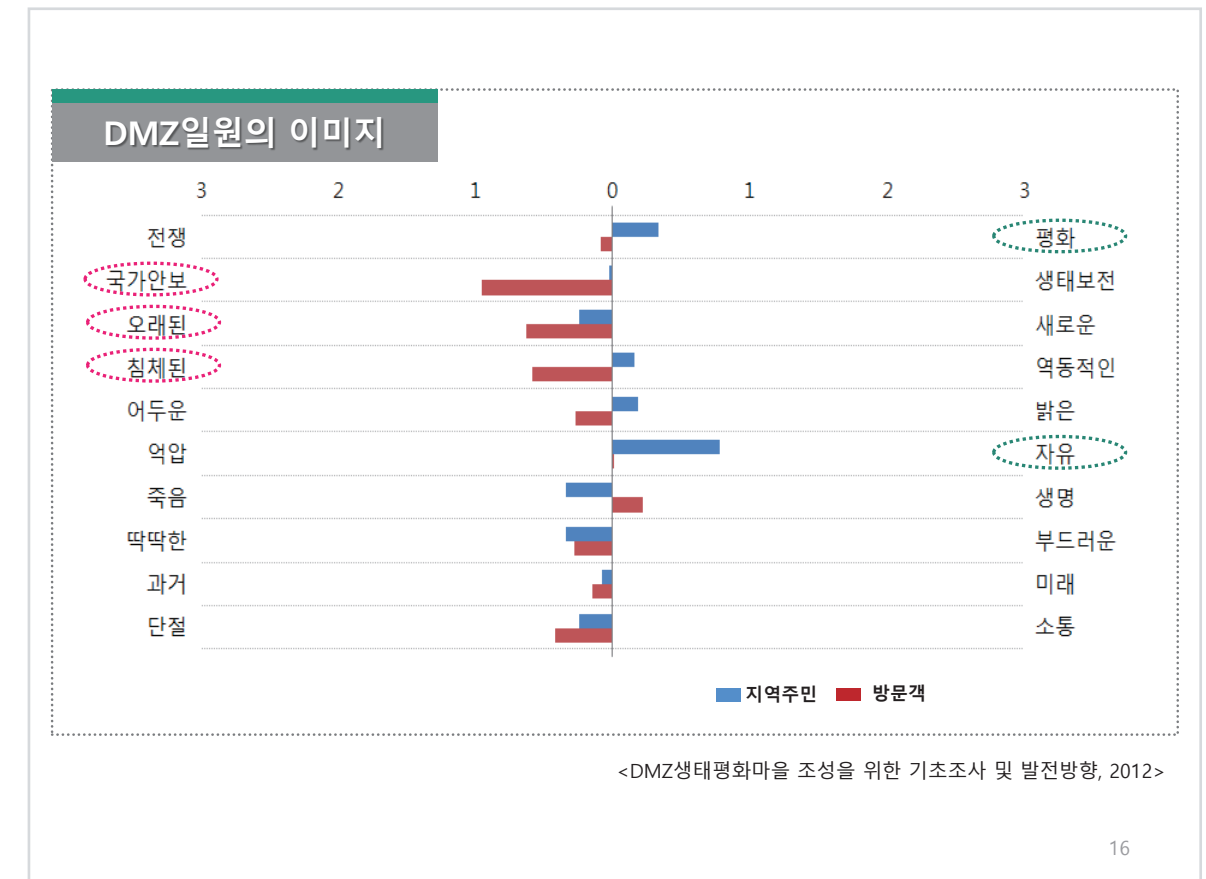


지도 출처 : 녹색연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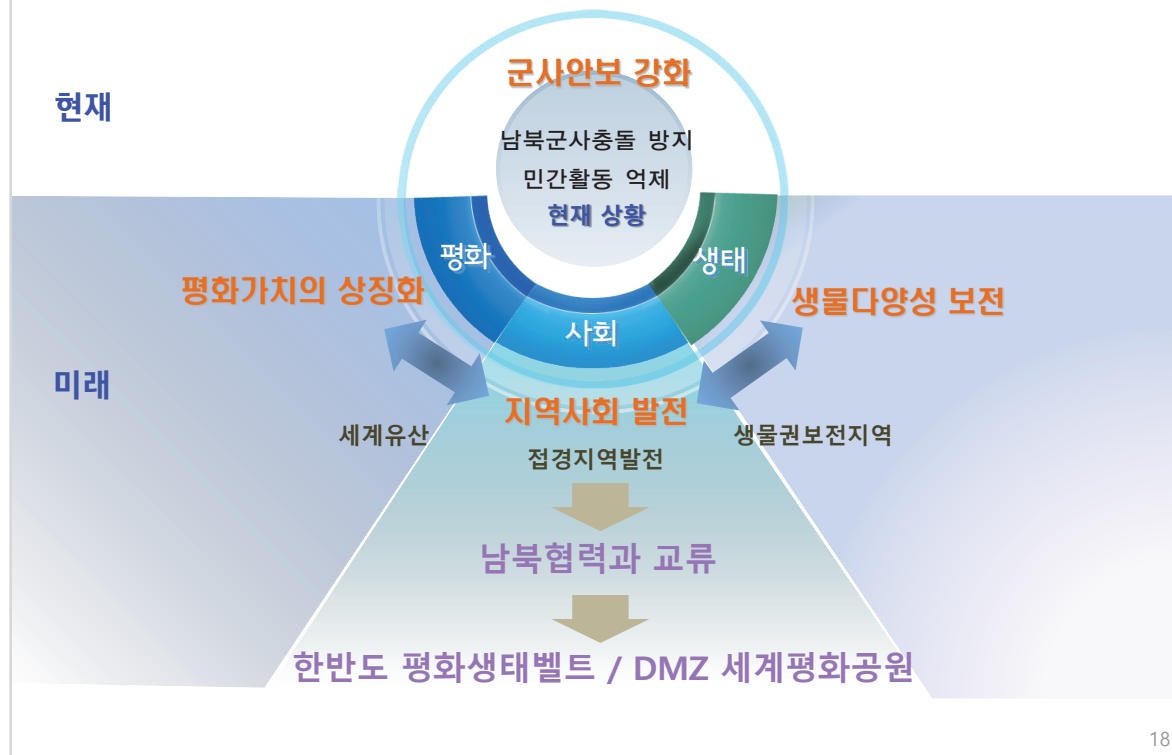
생태 가치 그 이상 : 평화의 세계적 상징

- ✓ 살아있는 냉전사의 현장
- ✓ 뜻하지 않게 만들어진 야생생물의 피난처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
- ✓ 관광자원 가치
- ✓ 국민적 관심과 열망의 대상





DMZ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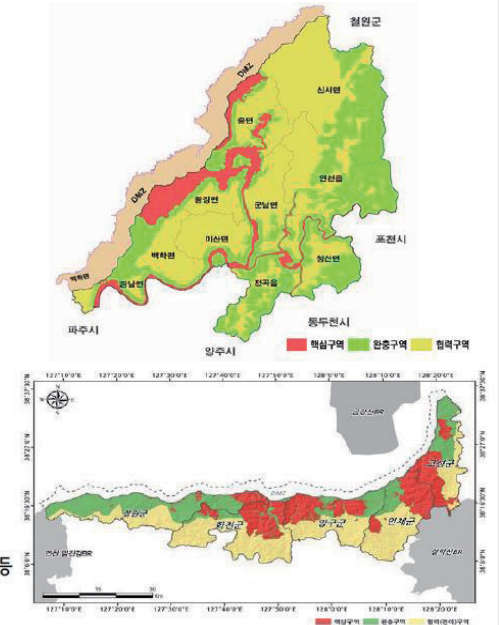


18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지정완료 (2019.6.19.)

- 지역의 자발성과 주도성에 기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기본사항	•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2개읍, 8개면) • 총 면적 : 58,412ha
용도지역 관련	→핵심구역 : 임진강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완충구역 : 임진강 및 한탄강 물줄기 옆 100m, 요존국유림 등 →협력구역 : 핵심 및 완충구역외의 거주지 및 농경
강원생태평화 생물권 보전지역	
기본사항	• 민통선이북지역 + DMZ 접경지역 일부 • 총 면적 : 182,815ha
용도지역 관련	→핵심구역 : 습지보호지역(용늪),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완충구역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접경지역 일원 이남지역의 산림지역과 농경지 등 →협력구역 : 핵심 및 완충구역 외 주민거주, 경제활동지역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BR) 추진 경과

- 199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 2000 UNDP/서울대학교, "경기북부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조사연구"
- 2001. 1 김대중 대통령, 접경생물권보전지역(TBR) 지정 추진 지시
- 2001. 4 한국 MAB위원장, 북한 MAB위원장에게 TBR 지정 제안 서신 전달
- 2002 환경부(KEI),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공동 TBR 추진 검토
- 2002 환경부, 생태복원 국제심포지엄 (서울), DMZ포럼(뉴욕) 등을 통해 BR공론화
- 2004. 1 환경부, "DMZ일원 자연생태계 보전방안" 국무회의 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4. 9 환경부,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남북공동 TBR 지정
- 2005. 8 환경부,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수립 - 남북공동 TBR 지정 장기 추진
- 2006.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북측에 공동 BR지정 다시 제안, 북한 무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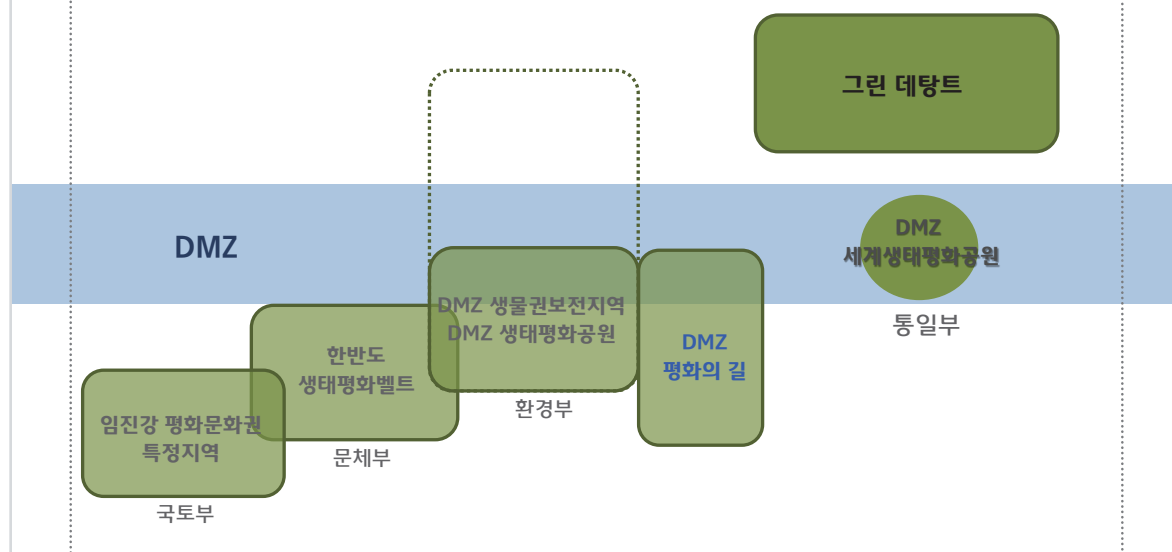
- 2008. 9 경기도(GRI), DMZ평화생태공원과 DMZ BR 지정 추진계획 수립
- 2009. 12 환경부(KEI),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토대로 DMZ BR 용도구역 안 마련
- 2010. 9 경기도(GRI), 경기권 DMZ BR 용도구역 안 및 지정과 관리방안 마련
- 2011. 3 관계기관합동, DMZ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2011. 6 강원도(RIG), 강원권 DMZ BR 용도구역 안 및 관리방안 마련
- 2011. 9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GRI/RIG),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12. 7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DMZ BR 유보 결정
- 2018. 9 연천군, 강원도(5개군) 각각 BR 지정신청서 제출
- 2019. 6 연천임진강 BR, 강원생태평화 BR 지정 결정

남북 공동 TBR

남한 우선 BR

지역개발 의제

남북협력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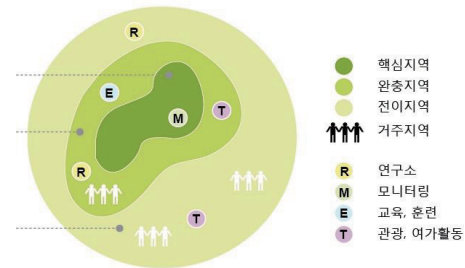


- 신정부 국정과제 : DMZ 환경·관광벨트,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 남북접경지역관리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9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역발전 - 용도구역

- ✓ 보전 :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
- ✓ 발전 :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인간 발전 촉진
- ✓ 지원 : 지방·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보전 이슈와 관련된 시범사업, 환경교육, 훈련, 연구와 모니터링 지원



핵심지역	완충지역	협력지역
보호, 연구 및 모니터링	생태관광, 교육 및 보전활동	생물권보전지역 개발 촉진
장기생태연구 (戰後생태계, Post-war ecosystem)	- 생태관광 - 환경 역사 교육	- 특산물 인증 및 라벨링 - 관광, 농업 등 특화
제한적 탐방활동	- DMZ생물권마을 - 전통적 친환경 농업	- 커뮤니티 비즈니스 -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법적 보호관리	- 비오톱 및 서식지 보전 - 훼손생태계 복원 및 관리	- 친환경적 개발 지침 - CSR, 기부운동, 파트너십

22

독일 그뤼네스반트와 유럽 그린벨트



독일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체로 확대



- 9개 주 정부 통과
- 길이 : 1,393km
- 폭 : 50~200m (일부 1~2km)
- 면적 : 177 km²
- 1개 국립공원
- 3개 생물권보전지역
- 136개 자연보전지역 걸쳐있음

- 24개국 통과
- 길이 : 12,500km
- 구간별 핵심 추진주체
 - 스칸디나비아반도 : 러시아 북서 국립공원협회
 - 발트해 : 발트해 자연기금
 - 중부유럽 : 지구의 벗 독일지부(BUND)
 - 발칸반도 : 유럽자연유산기금(Euronature)

23

독일 그뤼네스반트 보전과 개발

그뤼네스반트 대규모 보전사업 - 6개 지역	그뤼네스반트 체험하기 관광모델 사업 - 3개 지역
- Core areas: 146 km² - Duration: 1992 - 2009 - Financial support: 25.2 Mio. € - Core areas: ca. 10 km² - Duration: 2002 - 2009 - Financial support: 4.45 Mio. € - Core areas: 138 km² - Duration: 1992 - 2012 - Financial support: 34.0 Mio. € - Core areas: 185 km² - Duration: 2009 - 2021 - Financial support: 8.2 Mio. € - Start: 24 June 2010 127 km Green Belt - Core area: 108.4 km² - Duration: 2010 - 2021 - Financial support: ca. 7.8 Mio. €	- 엘베/알트마크 습지 모델지역1 - 하르츠 국립공원 모델지역2 - 튀링엔/프란코니언 삼림 모델지역3
6개 지역 (10~185km²)에 7년 부터 최대 20년 동안 445만~3,400만 유로를 지원하여 보전사업 진행 - 엘베강 지역은 보전사업과 관광모델사업 동시 추진	- 지역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경험하는 교육·보전인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구 - 독일연방 자연보전청(BfN) 지원, 환경단체 분트 주도로 생태+역사+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홍보 추진

24

독일 사례

- 철의 장막에서 자연보전과 생태역사관광 지역으로 변모
 - 동서독 국경은 30여 년간 삼엄한 무장과 감시가 이루어진 지역
 - 1972년 「동서독관계기본조약」 체결하고 이듬해 “접경위원회”를 설치, 수자원·에너지·자연재해방지 등의 협력 착수
 - 통일 직후 우수한 생태지역으로 변한 접경지역의 보전을 위해 “그뤼네스반트” 사업 시작
- 생태·역사적 가치를 보전·활용하여 생태+역사+문화 관광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 6개 지역(10~185km²)에 최대 20년 동안 445만~3,400만 유로를 지원하여 보전 추진
 - 튀링엔주 그뤼네스반트를 **National Nature Monument(국가자연기념물)*** 지정 (*18. 11, 연방의회)
 - *UCN 보호지역 카테고리II에 해당하는 법정보호지역
 - 그뤼네스반트 3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개발(연방자연보전청의 지원을 받아 분트 주도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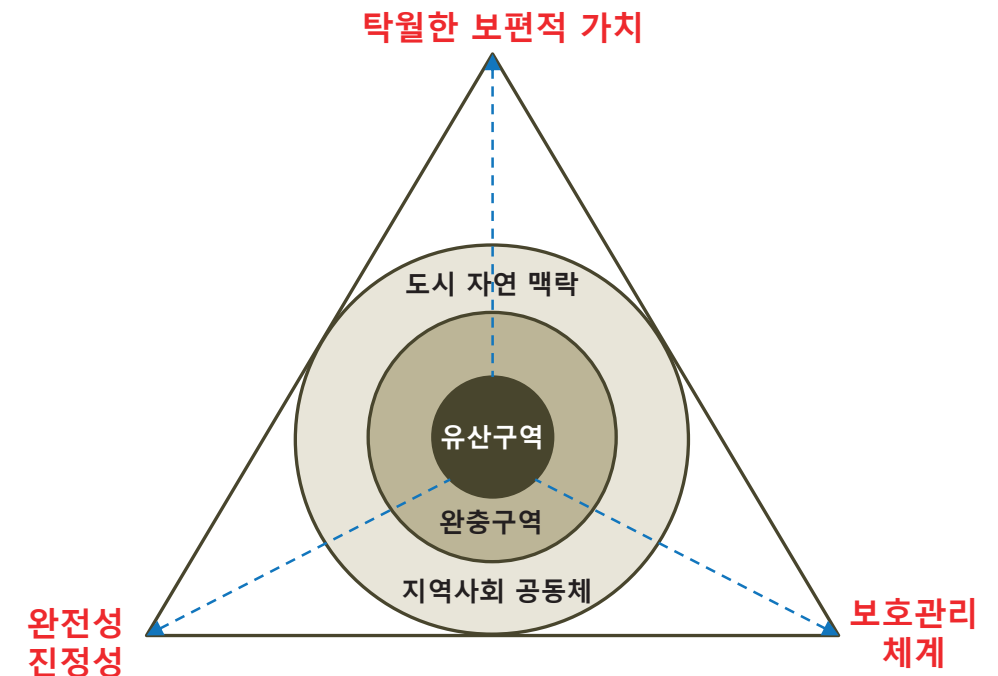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VI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경주지나 육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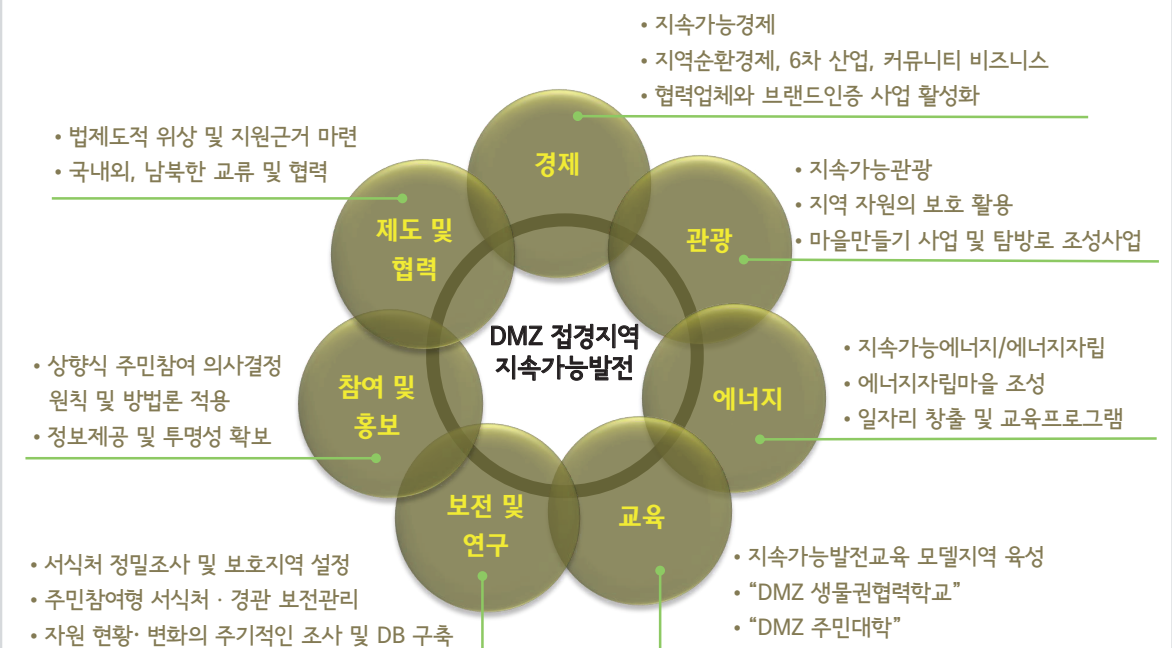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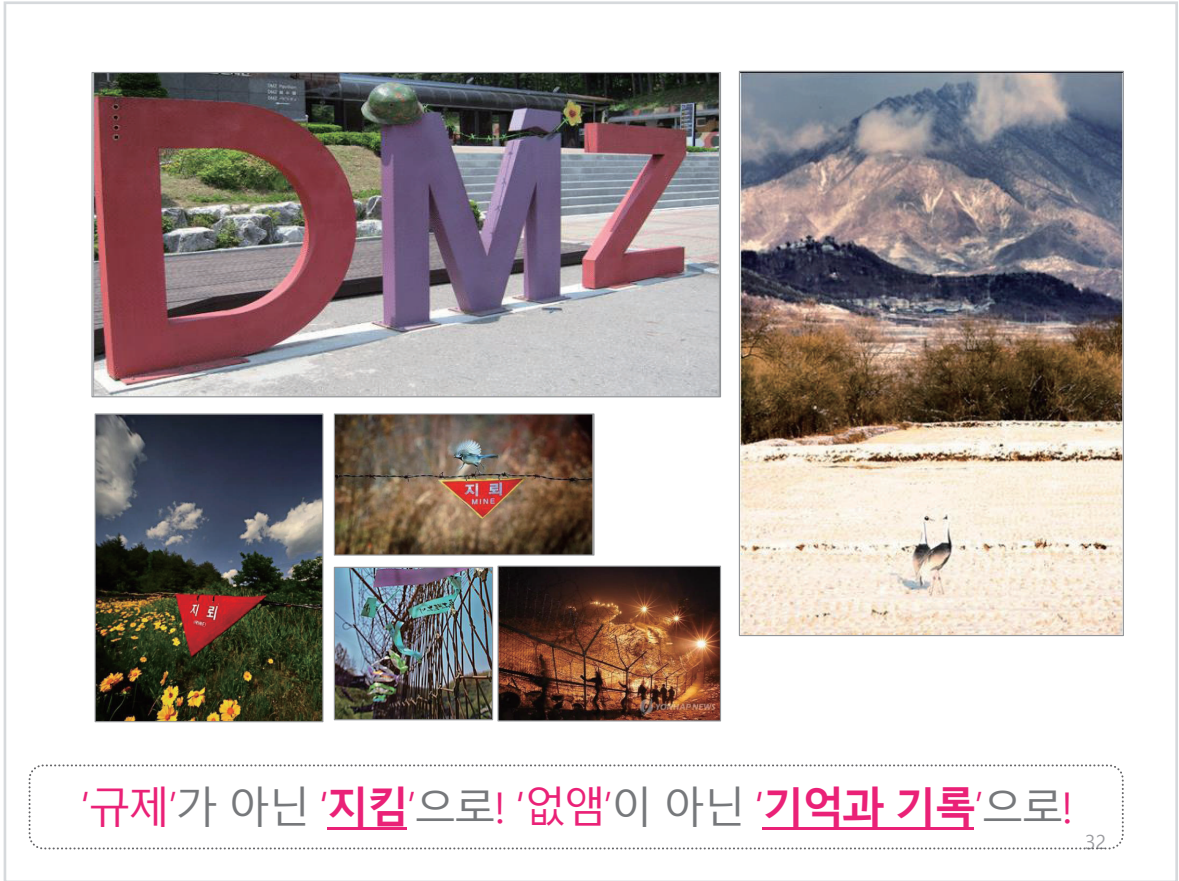
구분	기준	사례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27

지속가능발전 부문별 과제



29



'규제'가 아닌 '**지킴**'으로! '없앴'이 아닌 '**기억과 기록**'으로!

04_ 사례발표

공지에

[파주 장단콩초콜렛 생산업체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인증 사회적기업 DMZ드림푸드의 대표 공지에입니다. 현재 저는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가공한 장단콩초콜렛을 개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파주의 DMZ안보관광 기념품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 토박이입니다. DMZ 인근인 임진각관광지와 가까운 마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파주 문산읍에 산지 50여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북한의 대북선전방송을 들으며 자랐고, 주변에는 미군기지가 있어, 교육 여건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로 전환되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이 개방되면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아이들의 교육 여건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DMZ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이해타산을 따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개발자체가 쉽지 않아,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이룬다면 그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접경지역도 개발과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다면 또다시 접경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같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등은 DMZ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DMZ 세계유산 등재가 왜 필요한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개발 여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이룬다면
접경지역도 개발과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다면
또다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등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뭘 말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마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8년째 대성동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저는 올해로 51살이고 지금까지 대성동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마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대성동은 DMZ 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지구상에 우리 마을과 비슷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마을은 47세대에 190명이고 남자는 93명 여자는 97명에, 생업은 주로 벼농사입니다. 마을은 예전부터 태성이라고 불리었고 마을 앞에 토성이 있는데 그 토성이 태성으로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마을은 1951년 10월경부터 한국군 1사단 소속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육군첩보부대)가 상주하면서 첩보활동을 하다 다시 미 해병대 소속 8240킬러부대가 상주하였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마을의 청장년층과 같이 마을 외곽에 18개의 초소를 운영하며 교전을 하면서 마을을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휴전이 되면서 1954년 11월경 군대는 모두 철수하여 주민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1963년 10월부터는 미 제1기갑여단 민사처가 마을에 상주하기 시작하였고, 마을 실정에 맞게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살게 된 이유는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군은 대한민국 정부에 동의를 얻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을 둔다'는 부칙에 따라 그해 8월 3일 북측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대성동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휴전 당시에는 행정구역상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집은 며느리는 주민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한 딸은 떠나야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당시 규정도 우리의 미풍양속에 의해 만들어졌고 외부에서 시집온 여자들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한달 안에 100% 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연말에는 또 주민권 심사를 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조상묘가 있고 내가 나고 자라온 터전이라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8년 12월8일 자정에 주민인 이대성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대성씨의 피살 사건이 대성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러온 최덕빈이라는 한국군 연락장교가 낡은 초가집과 가난에 찌든 생활상이 북측에 선전요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장교가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때부터 정부에서는 대규모 재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무장지대 행정권을 요구했으나 유엔사는 주지 않고 일부 행정권만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1969년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참정권 등이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을주민은 무국적자였습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이 있기에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며 간헐적으로 외부인이 마을을 출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과 좀 다른 부분은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데, 그 이유는 대성동마을이 있는 비무장 지대는 미수복 지역이기 때문에 (1981년 5월 1일 병무청으로부터 회신) 병역법 25조에 의거하여 면제를 받습니다. 외부에 널리 있는 마트조차 마을에는 없습니다.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 신고

완전하게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가 정착되어
우리 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기정동 마을 주민들과
자매마을을 맺고 활발하게 왕래하고 교류하며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 전개되곤 하니
이런 우리 마을 주민들의 상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를 해야 하고, 몇 개의 검문소를 거쳐야 집에 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일일점검을 하고 일을 하러가려면 무장군인과 동행하고 자정부터 해가 뜰 때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됩니다. 야간에는 마을 입출입시에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은 군사분계선과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전쟁 개시 3분이면 전멸합니다. 항상 긴장을 하며 살아왔고 무슨 일만 있으며 대피소로 대피하여 지냈던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쟁위기가 최고조였을 때는 대남방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측정기 평균값이 50~60데시벨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은 주민들의 삶보다는 선전 효과 위주로 지어져서 북측에서 보이는 전면에는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타일이 거울 역할을 해서, 창문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집안으로 들려오는데 정말 사람이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삶의 터전이라고, 아침에는 멍한 모습으로 일터로 나가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마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맘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 같이 대성동의 모든 주민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도 있지요. 이곳은 벼보다는 밭작물인 인삼과 콩이 맞는 지역인데 외부인력 유입이 어렵고 농업이 벼농업 위주로 기계화가 되어 있어 주민들은 벼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200평이 한 마지기고 평균 벼 수확량이 12~15가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1마지기에 300평으로 벼 60kg 기준 10가마로 보는데, 이유는 이 지역이 모두 사토질이기 때문입니다. 미질을 위해 주민들은 계속 벼짚을 썰어 논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계획하고, 더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까지 경청해 주시니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하게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가 정착되어 우리 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기정동 마을 주민들과 자매마을을 맺고 활발하게 왕래하고 교류하며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 전개되곤 하니 이런 우리 마을 주민들의 상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다면 마을이 상업화가 되고 지금까지 지켜온 대성동 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빈부 격차가 없이 모두 마을을 지키면서, 더하여 기정동 마을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마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이사]

저는 연천의 한탄강 지킴이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환경 모니터링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DMZ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 대한 부분보다 제가 수년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장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것들을 다양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성사되면서 DMZ쪽이 굉장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전에도 땅값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땅값 문제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도 두루미보호를 위해 땅을 사려는데 엇그제는 10만원인데 오늘은 12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저에게 땅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묻습니다. 오늘도 제가 부동산중개소에 다녀왔는데, 빨리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전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개발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DMZ 전체의 초소들이 앞으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연천군에서도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연천 생물권보존지역의 핵심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부근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삼골리 이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연천에는 두루미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수가 450에서 500 개체 정도된다고 합니다만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늘었다가 줄었다가... 특히 군남면 홍수조절지대가 있어서 담수에 따라서도 개체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알아야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좀 더 DMZ 일원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인 관리를 위해,
이제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단체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두루미의 가치를 돈으로도 계산할 줄 아세요. 그전에는 두루미들을 귀찮아 하셨는데, 요즘은 “아~~ 이젠 이게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보존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두루미의 개체수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DMZ 일원이라 하면 안 보신 분들은 여기가 밀림입니다. ‘잘 보존된 산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직접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아주 황폐해서 산에 나무가 없어요. 아주 심한 곳은 8부 능선까지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산사태가 나구요, 그 퇴적물, 토사층들이 다 흘러서 지천을 따라 임진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구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후비용이 아마 점점 더 많이 들어갈거예요. 작년에도 연천군에서 홍수에 산사태가 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들어가보니, 지금도 아마...,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좀 원칙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MZ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물다양성유지와 자연경관이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지역주민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또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DMZ 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활동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시급한 것은 그런 큰 그림(DMZ 일원의 여러 가지 대책들) 보다는 작은, 기초적인 조사를 실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DMZ 일원의 높은 잠재력을 보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DMZ 생태관광의 인프라를 한 곳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평등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리고 이 기초 인프라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충분히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곶리 이장님도 계시지만, 삼곶리하고 저희가 지금 4년째 계속 교류하고 있거든요. 4년의 교류가 있고 나서야 이제 조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민이 움직여야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해부분과 저희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부분이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서로 이해해서 잘 협력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의 중심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걸음마를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연천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깜짝 깜짝 놀래요.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귀중한 부분이 구석구석 있더라구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두루미 문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루미’하면 철원이예요. 연천분도 철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두루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자체나, 저희 같은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루미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사실, 경기도에서 연천만큼 두루미 개체수를 많이 가진 곳이 없어요. 제가 삼곶리 주민들에게 “두루미 한 마리를 가치로 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오니까?”하고 물어보면 저보구 “두루미가 가격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한 마리에 한 7천만 원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7천만 원입니까?”하고 물어봅니다. 혹시 오늘 여기 김포시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 김포시가 두루미를 그 지역으로 유인하려고 약 1년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더라구요. 돈을 써서 두루미를 유인한다고 두루미가 그쪽으로 갑니까?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구요. 그럼 450마리를 7천만 원으로 하면 얼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천의 경쟁력이 뭐냐고 제가 자주 묻습니다. 여기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울무라고 하세요. 이걸 제가 욕을 들을 말인데 울무가 연천의 경쟁력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울무는 아무데나 심으면 됩니다. 저기 논에다가 심으면 산에다 심는 것 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연천의 이 두루미의 가치는, 이걸 경쟁력이 안돼요. 어떤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다 한들 두루미가 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연천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DMZ 쪽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교육,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알아야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좀 더 DMZ 일원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를, 이제부터 기초관리 시작을 해서 기초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배 [파주 통일촌 이장]

농사짓는 사람이라 발표 같은 거를 잘 못하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촌 마을은 1973년도에 민간인 40세대와 군 출신 분들 40세대 등 80세대를 구성해서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 개념으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하는 취지로 마을을 만들어 냈어요. 그 당시 민통선에는 마을이라고는 파주에는 우리 통일촌밖에 없었어요. 다음 한 20년 전에 해마루촌이라는 마을이 들어서서 파주에는 민통선 마을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1973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생물권이라는 거 보다두 이 일대가 전부가 논밭이나 아름드리 나무로 딱 차고, 다 늪지대가 됐더랬어요. 저녁이 되면 해 있을 때 밥을 먹어야지 해만 떨어지면 모기땀에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밥 먹고는 모기장 속에 있어야 살지 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생태가 많이 보존이 됐다는 것 일텐데, 지금은 전부 다 개간을 해갖고 늪지대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나하면 생물권 보존지역을 지금 시작한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늦었는데, 늦었다고 봐도 시작을 해야하는 개념으로 봐야하고 DMZ 평화유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입영농지역의
쓰레기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나서
생물권 보존지역이나 평화유산같은
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이렇게 세미나나 해갖고는 지역주민들이 공감들을 안해요. 지역주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사업이지 지역주민을 빼놓고 하면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통선 안이다 보니깐 지금 우리 주민들은 140가구에 4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지금 출입 영농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예요. 아침이면 이 사람들이 출입영농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올 때 쓰레기를 다 갖다 농경지나 주변 산하에 버리고 있어요.

그런 쓰레기통에 무슨 생물권 보존지역이고 평화유산은 다 뭐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먼저 다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생물권 보존지역이나 평화유산같은 사업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꺼낸 말이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연천 중면 삼곶리 두루미 빌리지 이장]

저는 최북단 마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두루미 빌리지 마을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길입니다. 저는 그냥 어찌다보니까 처음 이 자리에 섰는데, 떨어져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 중면 삼곶리는 197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엔 민북(민통선 북쪽)이기 때문에 (이 곳에) 마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약 20가구가 입주해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3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20가구 입주 때보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 입주 때는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지금은 다 노인이 되다보니 지금은 한집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남아 인구가 엄청 줄었습니다.

우리 삼곶리 마을은 농사(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한 2003년에 홍수 조정지라는 군남댐이 생기게 됩니다. 댐 건설지 바로 위가 우리 삼곶리 땅인데, 토지 전체의 3/2 이상이 댐 수몰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사짓던 땅이 물에 잠기게 되니 원래 땅을 소유하던, 재산을 갖고 있던 분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남의 땅에서 소작농을 하던 사람들은 땅이 없어지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경에 정부에서 마을의 땅이 수몰되니까 “마을 사업장을 하나 해봐라.”해서 지어준 것이 두루미 빌리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벼농사, 콩농사나 짓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니 사실 힘들니다. 또 마음도 안 맞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6-7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0동 정도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또 자꾸 사업자금 문제로 잘리다 보니까 현재는 14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경에 마을의 땅이 수몰되니까
정부에서 “마을 사업장을 하나 해봐라”해서 지어준 것이
두루미 빌리지 마을입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벼농사, 콩농사나 짓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니 사실 힘들니다.

현재, 마을 사업장은 어느 동네를 가던지 다 있습니다. 옆 마을에서 사업장을 하면, “우리도 하나 해 주십시오”하면서 사업장은 다 만들어 놓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뭐 사람이 와야 사업을 하던지 하는건데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니 사실 엄청 힘든거예요. 그래서 바램이... 사업장을 지어줄 때, 거기에(지역에) 맞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우리마을은 1978년도에 입주가 되었는데, 두루미가 중면에서도 우리 금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두루미, 재루루미, 흑두루미, 그리고 러시아 흰 두루미가 오는데, 이게 한 600~700 마리 정도가 작은 우리 중면에 많이 오고 있어요. 다른 곳은 철원에도 많이 가지만 이 쪽으로는 우리 중면에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1970년도 초부터 두루미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루미 관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구요. 지금도 마을주민들은 두루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두루미는 그냥 새려니... 두루미가 우리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저도 어찌다가 두루미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게 되어 한 몇 년 전부터 겨울에 마을주민들을 동원해서 두루미 먹이터를 좀 만들자 해서, 도하고 군이 조달해주는 먹이를 주민들이 먹이터를 만들어 먹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마을 이름도 두루미가 많이 오니까 ‘두루미 빌리지’라고 해놓았습니다. 두루미는 10월 말 경에 와서 이듬 해 3월 말까지 있다가 가는데요. 그 두루미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거 하고 DMZ 일원의 탐방이라든지 등을 해서 아주 작은 사업장이라도 사시사철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실현되면 해서 이렇게 나와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파주 해마루촌 이장]

DMZ의 세계유산등재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루촌은 생긴지 약 20년 정도된 마을로 저는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피난 나갔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 들어와 만들어 진 수복마을이구요 현재 150여명이 60 가구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통일촌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 민통선 내에 자리한 2곳 마을 중 하나입니다.

우리마을은 약간 다른 마을과 성격이 틀립니다. 다른 마을은 농사를 삶의 기반으로 해서 자리 잡았지만 우리 마을은 휴양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 다시 들어 온 마을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고가 다른 농촌마을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 마을에 들어 온 이후 시골 농촌마을을 이해하기 위하여 농업대학을 3년 정도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요, 마을 일을 맡게 되면서 약간 독선적인 이장이라고 할 까요, 마을분들을 제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시도록 많이 강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마을 자체가 훼손되서는 안되는 생태마을이에요. 제 생각에 이장으로서 저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요즘 그 ... 시에서 승인해줘서 농사에 해를 끼치는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올가미를 놓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설치하려면 이장 사인이 필요해서 제게 그거를 요구를 하는데, 저는 사인을 안합니다.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장이죠.

이 지역의 생태는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께 고라니나 멧돼지나 뱀까지도, 우리집 정원에 뱀이 자주 내려와요. 어제도 봤습니다. 과거 서울에 살 때는 뱀이 무척 징그러운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뱀을 쳐다보며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동물 식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



바쁘지 않아요.

그걸 왜 서둘러 허물고 없애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가꾸고 보존해서 관광자원화 해 세계인들이 그걸 보러 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 이런 생태가 보존되지 않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말 거라고, 그러니 이 지역을 아끼자고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내린천이라고 조그만 천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농사를 짓느라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막 갈아 얹으셔요, 그럴 보고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자연 천변 충적대지)그거 훼손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 마을의 보물이고 재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서울에서 온 여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연보존만 따진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 보니까 그 장벽이 다 부서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관광자원이더라고요. 그 장벽을 보러 우리도 첫 번째로 거길 갔어요. 그래서 옛것, 보존가치가 있던 없던 옛것은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연천이 있고 파주가 있는데 적성 그 구(옛)다리 있잖아요, 그걸 허무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인데 왜 저걸 허물까 저걸 보존하면 나중에 관광자원이 될텐데, 왜 저걸 허물까 ... 그걸 허물고 이쁘지도 않은 새 다리를 뒀어요. 그 다리가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휴전선 철책선도 없었죠, 그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쁘지 않아요. 그걸 왜 서둘러 허물고 없애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가꾸고 보존해서 관광자원화 해 세계인들이 그걸 보러 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세요. 마을 전체 60가구를 모두 정원으로 만들어 해마루촌 이름 하나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걸 없애고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무슨 관광입니까. 우리 절에 가보면 굉장히 고풍스럽잖아요, 경제대국 일본에 가보니 절이 대부분 새로 지은 듯해서 저걸 보러왔나 실망을 했습니다. 고풍스럽고 유서 깊은 유적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데요. 저는 자연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서울)목동에서 살다가, 우리 주인양반 고향인 해마루촌으로 끌려오다시피 이주를 해서 결국은 이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주민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들 이해하고 따라주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은 물건을 팔아서 살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힐링이 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잖아요. 이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서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 가능하다면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살고있는 민통선·DMZ 지역이 세계사람이 와보고 싶은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주민의견 많이 수렴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관 [연천 나룻배마을 주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에 살면서 나룻배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관입니다. 연천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대표로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저의 개인적인 생각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기본적인 결론만 내겠지만,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가 체험마을이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이 생업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생태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자연유산으로 등재한다면 저희가 농사짓는 것을 그만두고 다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연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충돌점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학자나 정책, 데이터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의 격리 혹은 그런 정책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사 지을 때 가장 큰 적이 뭘지 아시죠? 고라니하고 멧돼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고라니가 큰 역할을 하겠지만 농민들에게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요즘에 콩 다 뜯어먹고 다니구요, 전기철책 아시죠? 그 철책 쳐봤자 철책 3칸 사이로 뛰어 들어오고 급하면 점프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라니를 막는데, 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냄새나는 약이라든지 살충제 같은 약을 씁니다. 저희는 먹고 살아야 할 농민이고 고라니도 개체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을 계발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이쪽 지역에서 농민과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농업을 시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겠죠.
저희도 환경을 파괴하기 싫습니다.
농사지으면서 농업의 가치나
자연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게끔
새로운 농업방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는데 과연 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서로 공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이나 대안들을 좀 제시해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안과 장점과 단점, 피해와 좋은 점들을 좀 홍보한 후에, 그런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포럼에서 기초연설이나 발표를 해서 진정 이것이 주민이나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해야 저희가 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포럼을 두 번 쯤 한 다음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고 정리해서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주민들 의견이 담겨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좀 더 큰 정책을 하실 때, 기본을 주민들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넣고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차상에서 좀 신경쓰는 것 같고, 진짜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구요.

좀 두서없습니다만 지금 연천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디만, 생물권보전지역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나 해가 있을까?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쓰고 홍보도 하겠지요, 농업은 환경을 가꾸기도 하지만 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유지를 위해 진짜 친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던가, 방책을 만들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연천의 울무농사 아시죠? 산의 8부 능선까지 제초제를 다 준 후에 콩이나 울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풀이 나오기 전에 또 약을 칩니다. 아마도 연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초제를 가장 많이 쓰는 군일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바꿀 수 있나? 농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바꾸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먹고살 만큼 재정지원을 할테니 농업을 포기하라고 하던지 그 밖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부분과 환경부분이 물론 같이 가지 못하고 많은 부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방향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두루미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먹기도 주고 활동도 해봤는데, 아까 두루미가 7천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아마 제가 유일하게 두루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제가 체험마을에서 두루미 생태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5천원씩 받고 투어를 합니다. 두



루미를 보려고 돈을 내야한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두루미 한 마리 보는데 1천원씩 받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투어는 두루미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 만큼 연천의 환경이 좋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조가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자연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좀 약하지 않나 합니다. 그랜드 캐년같이 큰 대자연은 그 자체로서 돈이 되겠지만 저희가 연천쪽 등이 이런 지정이 되어 그 자체로서 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다른 어떤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그 자체를 재화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환경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농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위쪽에 올리셔서 진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을 계발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이쪽 지역에서 농민과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농업을 시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겠죠. 저희도 환경을 파괴하기 싫습니다. 저희도 별래 좋아하고 농사지으면서 농업의 가치나 자연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게끔 새로운 농업방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는 분 중에 자연농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생산물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물에서 취득한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먹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생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자격을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합니다.

여튼, 세계유산등재에 관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그 차후의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짜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DMZ가 많은 화제거리가 되다보니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정부와 관련해 음식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DMZ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본 DMZ는 골짜기마다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DMZ를 이야기함에 있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보안문제입니다.

DMZ는 보는 이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른데, 여러분이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라 가정하고 DMZ를 보신다면 이 곳의 전체 155마일을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제권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빠진 파주가 그렇습니다. 국가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은 제2 개성공단지역으로, 군내면, 진동면, 그리고 자유로에서 강맞은편의 지역(장단면)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철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원자재를 들여 오기 위해 경원선 복원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원자재를 들여오면 1차 가공을 해야 하는데, 철원에 이 소재공단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천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1땅굴 아시죠? 이곳까지가 아호비령산맥과 마시령 산맥의 종점이에요. 그래서 산의 혈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펼쳐진 넓은 장단리, 포춘리, 청정리를 포함하는 연천평야는 앞으로 제2 개성공단의 연구용역을 담당할 연구소 단지가 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땅굴에서 시작해서 화살머리 고지, 백마고지까지는 국가공원, 세계생태평화공원 부지입니다. 이 곳은 단순히 몇 개의 마을이 아니라 몇 개의 시와 군을 포함합니다. 또, DMZ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이상의 길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연천의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지역은
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또 타 지역과 다르게 습지, 산악지대, 평지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다가 트레킹에 아주 좋고
역사와 문화유적지도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철원의 경우는 지대가 낮은 평야지대인데다가 3사단 지역의 경우는 남북이 가깝기 때문에 북쪽에서 총을 쏘면 바로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연천의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지역은 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또 타 지역과 다르게 습지, 산악지대, 평지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다가 트레킹에 아주 좋고 역사와 문화유적지도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군사·지형적으로 봐도 철원지역보다 안전하지요.

GP 개방도 말씀드리면, DMZ 상에 11개 사단이 있고 17개의 크고 작은 GP가 있는데, 그 중 11개의 전망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1개 사단의 GP중 각 1개씩을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방탄조끼, 방탄모 쓰고 전망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DMZ를 자원화 해서 재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화를 얻었는데, 우리만 독차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관광객에게 총 안 쏘는 댓가로 경제와 물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미래에는 두 나라 한민족이 서로 상생하고 공동번영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만 오늘날에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DMZ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가 쌓여 다음 세대의 통일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_ 종합토론

좌장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이코모스코리아 사무총장]

제가 연천문화재 위원으로서 자문 때문에 여기 몇 번 왔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올 때마다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대단히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라는 곳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하고 그 정책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각국의 대사들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관련 인사들, 그리고 정부 대표자들이 오는 자리인데 제가 몇몇 대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별로 할 말도 없어서 “DMZ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오늘 여기 온다는 생각으로 물은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열네 번째로 서원이 등재가 됐는데 그 다음이 흐릿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만한가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DMZ가 유력하지 않은가 해서 대사들에게 얘기했더니 거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여기 DMZ를 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님의 발표도 잘 들었고, 또 여덟 분의 주민대표 분들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정된 토론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에 시계가 있어서 실수는 범하지 않겠네요. 지금이 4시니까 5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주민, 또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는 세계유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을 만드는 것은 우리 조상이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은 결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까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 등재는, 주민들은 나중에 등재 된 다음에 알고, 과정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DMZ에서 비로소 초기부터 이렇게 주민들을 모셔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세계유산 관련한 우리 행정이라고 할까요, 업무추진에서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각, 입장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서 10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겁니다. 10분 동

안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짧은 시간인 줄 알고 서둘러서 말씀을 끝내버리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좌중에 계시는 여러 참석자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주민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발표자가 아홉 분이네요. 이 발표자께 질문이든 조언이든 어떤 의견이든 말씀을 해주시면, 발표자를 지명해 주시면 그 분이 대답하시고 공통적인 문제는 생각하시는 분이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구 대성동 마을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종근 지질공원해설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일찍 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김경숙 이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경숙 이장님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DMZ 접경지역의 주민들, 또 마음, 성격이 일반적인 성격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고 또 불안정하기도 한 이런 분들에게 그런 특성이 있지 않았는가. 아까 김동구 이장님께서도 시집 와서 한 달 만에 우울증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주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정착이 되었는데 또 DMZ를 세계유산으로 한다니깐 이것이 또 하나의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의 요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시기 전에 보충의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경숙 [발표자, 파주 해마루촌 주민 대표]

저한테 물어볼 말씀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한필원 사회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질문을 받으시는데 주민이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이장님께서 시간상 먼저 자리를 뜨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거나 논의할 게 있으면 말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숙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DMZ나, 민통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 쪽이 상당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땅값도 들쭉들쭉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안 반가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땅값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사는 3개 부락은 정말 평화와 안정,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은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는 마음들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우리 마을이나 3개 부락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슬로우”, “천천히”라고 딱 한 마디 해줘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보전된 이 생태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보전하고 이것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정말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생업까지 포기해야하면서 세계유산에 우리 살림을 몽땅 바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좀 더 천천히 생각하자.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맞는다.” 지금도 매일 이렇게 오셔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냐?”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난리굿을 치고, “땅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이거 팔아라.”,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통선 지역이 이다음에라도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제가 조금 아까 발표했듯이 많은 사람들

이 그 지역을 보고자 올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까 연구원님이 어느 지역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땅도 있을 것이고, 또 생태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좋은 생태가 보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DMZ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3개 부락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DMZ 지역을 연구하시는 여러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박수)

한필원 이장님, 해마루촌이 3개 마을이라고 하셨죠?

김경숙 아니요. 해마루촌, 대성동, 통일촌 이렇게 민통선 내 3개 부락 주민들 의견이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지금도 협회에 들어와서 그 안쪽으로 개방을 시키자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NO”입니다. 개방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대로 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필원 ‘생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DMZ 접경지역 마을의 속성은 마치 과거 유목민들의 마을에서 느끼는 것처럼 안정성의 문제의 갈구, 그것이 대단히 크고 어쨌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것이 그런 안정성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배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완배 이장님도 조금 일찍 가셔야 하는 것 같은데 이완배 이장님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덕 [참석자, 연천군민회]

저는 연천군민회 윤중덕입니다. 김경숙 이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데 지금 해마루촌이라든가 이쪽은 마을 분들이 바람직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태풍전망대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산의 경사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현재도 자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면적을 개발해 봐야 얼마만큼 이익을 얻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을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충돌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장님 같은 마인드와 주민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과 개발, 난개발의 개념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김경숙 이장님의 마인드를 연천이라든가 타 지역 분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아까 듣기는 했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이 있다면 듣고 싶거든요.

한필원 윤중덕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완배 이장님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김경숙 이장님께서 지금 윤중덕 선생님이 김경숙 이장님의 마인드에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지금 묵동에서 이사 가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김경숙 저는 거의 묵동 토박이처럼 살다가 고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한필원 얼마동안 계신 거예요?

김경숙 지금 20년이에요.

한필원 20년 내내 이장을 하신 거예요?

김경숙 아니요, 지금 4년차예요.

한필원 네, 알겠습니다. 20년 거주하시고, 4년 이장을 하신 경험으로 대답을 좀 해주시죠.

김경숙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을 주변을 자주 다니면서 장단삼백이라고 해서 인삼과 쌀, 장단콩이 굉장히 유명하죠. 임금님 진상품이라고 해서 그쪽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아름다운 강산이 다 허물어집니다. 포크레인으로 다 갈아버려요. 가슴 아프죠.

물론 농민들 마음 이해가 가죠. 생존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앞날을 볼 때는 그게 참 마음 아파요. 그 나무가 자라서 어우러지려면 수십 년 걸리는데, 정말 아름답리나무가 큰 돈, 아까 두루미 한 마리에 7,000만 원 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7,0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싼 거예요. 그게 먹이 준다고 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으시고,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조그만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이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령들이셔서 그분들의 생각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신생마을, 20년 됐지만 제가 정원 가꾸고, 마을 가꾸고, 자연을 가꾸라는 이야기는 욕을 먹어가면서 이장 일을 안 할 때도 했어요. 정말 잘난 척을 무지무지 하고 살았어요. 주민들 반발 굉장히 컸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1억을 벌려면 도대체 몇 년을 농사지어서 1억을 버시겠습니까? 하지만 내 옆 자연을 가꾸면 순식간에 수익의 집값이 뛰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악을 쓰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쪽으로 자연가치를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궁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리석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우리 마을은 힐링이 될 수 있는 힐링마을이고 천연적인 자연마을로 여러분들이 잘 가꿔주십시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저희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이 그렇게 예뻐요. 인터넷에 ‘해마루촌’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주소가 전부 다 ‘높은음자리길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갈 정도로 배치도가 음표로 되어 있고, 파주시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투자한 마을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보전과 농업이 공생할 수 있는, 아까 박영관 이장님이 제시하신 내용은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풍수의 가장 큰 숙제가 이것이었거든요. “과연 농업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인가?”그래서 이 문제는 박영관 이장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환경을 살리는 농업 방식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것이고요.

김경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주민교육을 통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완배 이장님께 질문이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똑같은 문제인데 늪지대가 개간되고 또 ‘출입농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출입농경이 쓰레기를 유발하는 문제, 소위 이것은 관리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주민들끼리 사이 좋게 할 때는 그 나름의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유산 한다고, 또 다른 거 한다고 외부에서 개입이 되면 그 질서가 교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나 공적영역에서 할 일인데 이제까지는 등재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주민 동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은진 실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진 [기조강연자,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

제가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마 주민 분들 중에서도 철새들이 오는 것 때문에 겨울에 벼짚을 존치하는 형태로 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고 계실 텐데 그것이 하나의 사례이고 제도인데 철새를 보호하고 살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지불을 받는 제도거든요. 좀 더 넓히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라고 새롭게 환경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생물권보전지역을 뒀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계 보전이 잘 공존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자꾸 만들어나가고, 광고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풀면 될까라고 다 같이 맞대어 머리를 쓰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됐으니까 여기가 좋은 곳이야.”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자.” 이게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같은 그런 것들은 벼짚 존치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아까도 말씀하신 고라니 문제, 그다음에 올무 같은 거 놓으면서 잡을 때 문제, 사람들은 다 이해당사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얻고 싶은 이익이 있고 보전해야 되는 이익이 상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을지 제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쓰레기 문제도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요구하시고 방법도 찾아보면서 지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환경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제도를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가 생

태계보전지역인데 이런 것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필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라고 하셨나요, 좋은 제도가 있네요. 그런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님께서 아까 늪지대를 개간해서 농경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제의가 있었습니까?

이완배 [발표자, 파주 통일촌 주민 대표]

우리 통일촌이 197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민통선 안이 전부 다 늪지대였어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글같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민간인이 한 2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들어왔으니까 보전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농경지로 개발하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졌죠.

생태보전이라든지, DMZ 자연유산이라는 것도 그전부터 신경을 썼으면, 지금은 다 망가진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예요. 민통선 안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출입영농 하는 사람들이 파주지역에 4,000명~5,00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쓰레기를 갖고 와요. 그리고 획 던지고 가면 그 만인데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한필원 개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었던 것인가요?

이완배 그 당시 정부에서 시켜서 개간한 것도 많지만 주민들이 아닌 외부 경작자들이 1998년도부터 땅주인들이 등기를 다 냈어요. 내 땅이니까 다 등기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간이 안 된 데가 있으면 개간을 하고 그러니까 농경지가 많이 늘어난 거죠.

한필원 개간해서 모기 없어진 것 말고는 좋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구 이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잘 되고 해서 기정동 마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는데 세계유산으로 하면 상업화가 되어서, 사람답게 한 번 살아보려 했더니 정신없게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대남방송에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 피살사건도 있고, 사람 사는 마을로서 여건을 못 갖추고 계셨는데 제가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이 된다는 것은 전 인류의 유산으로서 인정받고 그다음에는 보호관리라고 해서 아까 박은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는 이게 밭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 무리하게 벼농사를 지어서 영향이 있다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유산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상업화인데 그 상업화가 왜 생기느냐 하면, 세계유산이 되면 관광지로 급부상합니다. 그렇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어서 관광객이 사실상 증가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DMZ가 만약 세계유산이 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벼농사도 힘들고 한데 관광객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수익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구 [발표자, 파주 대성동 주민 대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이 마을공동체하고 생존권만 빼앗지 말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이 DMZ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자연유산은 자연에 대한 것을 유산으로 만들고, 문화유산은 그 사람들 삶에 대한 것을 문화유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두렁에서 OO가 났어. 그러면 이 OO는 못 자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선 농사를 짓는 데는 분명히 제약이 따라가고, 그렇다고 외부사람이 유입되어서 정작 상업화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업만 했던 사람들인데 상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장사가 되어서 돈이 생겼어, 농사짓던 이 사람들은 다 사기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 우려하는 것 하고요.

사실 다 저희 땅은 아니예요. DMZ가 미수복지역인데 우리나라의 행정과 사법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아닌데 사법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이 사람의 땅을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도 예전에 정부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부 지역이 사유지가 되어 버렸어요. 대신에 DMZ는 지금 UN사가 통제하다보니까 출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남북이 평화 분위기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 삶의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한필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유산이라는 굉장히 상업화된 제도에 편입된 순간 역으로 정체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장님의 우려는 전문가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이 될 때는 ‘유산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DMZ이고 폭 4km인가요, 그 안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종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DMZ 전체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것을 ‘완충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성동 마을은 완충구역 정도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업화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객석에서 김동구 이장님께 하시고 싶거나 토론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이장님은 오늘 늦게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물거리다 못 들어가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김동구 못 들어가죠. 저희는 10시 30분이 마을로 들어가는 막차입니다.

한필원 어디서 막차예요?

김동구 JSA경비대에서 경호원을 편성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필원 10시면 실컷 말씀 하셔도 되겠네요. 다른 말씀은 혹시 없으세요?
소속과 성함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정순 [참석자,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저는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한정순입니다.

저는 단순한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파주에는 대성동이라든가 통일촌, 해마루촌 같은 경우에는 생태가 굉장히 잘 보전되었을 것 같은데 그곳을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한필원 딱 집어서 대성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순 아니, 세 군데 다요.

한필원 그러면 세 이장님들께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차례로, 3개밖에 안 되니까요.

이완배 대성동은 가기가 힘들고, 우리 통일촌이나 해마루촌은 미리 오신다고 이장한테 연락을 주면 검문소에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언제 온다고 통과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장님께 미리 약속을 하고 가면 되는 거군요.
김동구 이장님! 대성동은 이장님 빼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김동구 DMZ나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출입은 저를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한필원 그러면 김동구 이장님께 연락드리면 당장 내일도 갈 수 있습니까?

김동구 그것은 안 되고 열흘 전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오는데 사실상 저는 평범하게 농사짓는 사람인데 경찰도 되어야 하고, 군인도 되어야 하고, 공무원도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마을 방문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가 궁금해서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동구 그렇게 했을 때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김동구 지금 출입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단적인 예로 마을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경우의 사람들만 간헐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필원 원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박종근 [발표자, 연천군 지질공원 해설사]

제가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DMZ 안에 대성동 마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월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민통선 마을이라고 하면 남방한계선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등록증만 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정전협정에 보면 남쪽에 하나, 여기가 DMZ 선상이라고 하면 중간선, 바로 이 선 여기입니다.

UN사가 2개의 마을을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민간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못돼요. 이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한필원 감사합니다. 해마루촌은 어떻습니까?

김경숙 대성동은 DMZ, 해마루촌도 통일촌처럼 저희 두 마을은 민통선 마을이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현재 2개 마을이 거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대성동 주민들만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자기네 지역 옆에만 짓지 외부인들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통선 지역의 주민들도 대성동은 못 들어갑니다. 사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저희들 정보를 다 제공하고 우리 이장님께 이러이러해서 농사를 도우러 들어간다는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해마루촌이나 통일촌은 주민등록증만 낸다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꼭 전화로 인적사항을 주셔서 이장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 출입이 가능하지만 대신 통제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뢰밭이 많아요. 저희 주민들은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백학산이라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의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대번 쫓아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다 묻고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을 방문하셔도 마을 이외에는 다니지 못 하게 그렇게 저희 마을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필원 두 이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앞으로 전화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유정아 [참석자, 울춘부락 관광해설사]

울춘부락 관광해설사 유정아인데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DMZ, 비무장지대 안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도 문화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김경숙 사실 우리 3개 부락은 문화시설의 혜택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깊이 있게 어떤 운동을 하고자 하면 거의 문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행복센터가 있고, 통일촌은 나름대로 요가나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주시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어르신들이 마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동구 저희 마을은 마을회관 시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을 만들고 2층은 롯데시네마와 MOU를 맺어 영화관을 만들고 맞은편에는 이번에 KT에서 5G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스마트 요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낮에는 오로지 농사를 짓고 밤에 집에 와서 자는데 근육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강사도 구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화면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유정아 만약 제가 들어가서 재능기부 봉사를 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지요?

김동구 어떤 것인지?

유정아 저는 국악 쪽을 많이 해 가지고 장구나, 북이나, 가야금 이런 것을 제가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서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겠다고 그러면 받아줄 수 있나 싶어요.

김동구 그것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성 등을 다 따져야 됩니다.

유정아 언젠가 제가 배운 것을 누구에겐가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한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공부해서 가지고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말씀 안 하신 분이 박영관 이장님, 아까 비판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해법을 여기에서 제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해서 더 질문이나 토론회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의 핵심은 이런 모든 활동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또는 DMZ 보전·활용에 대한 활동이 생존이나 생활, 특히 농업이라든지 생업과 공존이나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순자 [참여자, 파주학당]

저는 파주학당에서 왔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DMZ 안에 대해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한필원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순자 김순자라고 합니다.

한필원 김순자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김순자 DMZ 안에 들어갈 수 방법은, 들어가는 목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전국이나 해외에서 오는 또 하나의 목적은 관광입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그 밖에 남방한계선이 2km 밖에 그어지고, 그 밖에 또 하나의 선이 그어진 것이 민통선이에요. 그런데 민통선은 대부분 출입이 아주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파주 민통선에 3개의 마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세 분 같은 경우에는 DMZ 안에 하나의 마을이 있고 그 밖 민통선에 2개의 마을이 있는데 김동구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DMZ 안에는,

한필원 잠깐만요.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제가 요구 드린 대로 이장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설명은 이미 다 됐거든요.

김순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는 것을 너무 궁금해 하셔서요.

한필원 그것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영관 이장님께서 혹시 조금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관 [발표자, 연천 나룻배마을 주민 대표]

아무래도 농업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환경과 농업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관행적으로 퇴비를 사용하고, 농약을 뿌린 지가 아마 길어야 한 50~60년 됩니다.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농업이 바뀐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플 때, 민통선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유가 결국은 식량증량정책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포기한다면 지금 민통선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빅딜을 하든가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농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거시적인 사업이 되겠죠.

일단 민통선의 보전효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빠른 것이 있다면 민통선을 빨리 해제시키는 것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통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일도 있겠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마구 사용해도 주민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연 쪽에서 보시면 항상 때 오픈되어 있으면 항상 감시를 합니다. 밀폐되어 있으면 감시를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민통선은 빨리 풀리면 풀릴수록 자연환경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민통선 해제도 좀 필요하다, 농업 포기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생업을 포기하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쪽으로 가겠죠.

박영관 포기가 아니라 농업의 형태를 좀 바꾼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강내리 지역은 겨울에 두루미가 300마리 이상 내려오는 곳인데 저희가 한 4~5년 전부터 거기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미들이 그 근처에 머물러 사는데, 댐 수몰지 때문에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아본 결과 농사를 지어야만 그 먹이를 먹으려고 두루미가 와요. 그런데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과 조금 더 협력해서 풀어준다면 저희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한필원 알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그 뒤에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만 [참석자, 한겨레신문 경기북부담당]

저는 한겨레신문 경기북부담당 박경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김동구 이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기정동 마을과 평화교류를 하고 싶다고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북한 기정동 마을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그냥 대성동 마을 이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혹시라도 얘기가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을회관 옥상에 주변 풍경을 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쪽에서도 북측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략 25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을 보다 보니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예전에는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다가 요즘은 색깔 있는 옷을 입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토바이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기도 사람들이 살면서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만 혹시 그 경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성동 마을 농경지하고 기정동 주민들이 짓고 있는 농경지와의 경계가 혹시 농사지으러 갔다가 마주치기도 하는 그 정도 거리입니까?

김동구 거리는 사실 제가 1m 앞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차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느 한 쪽 부분이 저희가 북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쪽에서는 내려와 있고, 한쪽 부분은 우리가 내려가 있으면 그쪽이 올라와 있고 그런 식의 형태가 보이죠.

박경만 서로 농사짓는 농경지 경계가 몇 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김동구 농경지는 후변에 있는 것이, 그 앞에 사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계에 대한 표지는 못 하고, 북측에서 군병력들의 초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 외곽으로는 저희 영농지가 군사분계선 1m 앞까지 가 있습니다.

박경만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파주시에서 사천강이 해마다 자주 범람해서 그쪽 사천강 준설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사천강이 범람했을 때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동구 북측에서 사천강 하류지역에 제방을 쌓아버렸어요. 제방을 쌓다 보니까, 물줄기가 남쪽에서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흘러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북측에서 하류지역에 제방으로 막아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물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농경지 3분의 1 이상이 다 침수가 되어 버리고, 그쪽 제방이 터지거나 그쪽에서 물을 안 열어주면 여기서는 농사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주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필원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화식 [참석자, 연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원화식입니다. 오늘 주제가 DMZ의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그런데 막상 불안하게도 우리 연천은 물이 제일 오염된 지역입니다. 그 오염된 지역에서 생태계가 우수하다고 DMZ를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게, 만약 등재가 다 되었다고 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한탄강 다리를 건너면서 분리 독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분리 독을 만들어놓은 데는 우리 연천밖에 없을 겁니다. 조롱거리 아니겠습니까! 생태계가 우수하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가장 물이 오염된 이런 연천지역을 보이려고 세계유산에 등재했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이왕 우리 연천이 생태보전지역으로 된다고 한다면 분리 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류에 오염된 지역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오늘 세계유산 등재에 좀 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한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 [참석자, 연천 주민]

연천에 살고 있는 박○○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포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들의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우리 DMZ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군인들일 것이고, 물론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국방부가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논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진 실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한필원 박은진 실장님이 그 말씀도 해주시고 이왕 이렇게 된 것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면 보

태주시죠.

박은진 군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특히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국립생태원이 DMZ 민통선 지역에 대해 생태조사를 5년 주기로 바뀌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때 DMZ 내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군 사단과 협력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협력은 군 당국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유산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세계유산도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특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과 발표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사실 여러 번 엇어지고, 다시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역이 요구하는 방향, 지역이 원하는 방향을 수용해서 가거든요. 답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이 방향이야.”하고 내린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2012년 신청했을 때는 철원군이 다 빠졌었거든요. 거기는 엄청난 반대를 해서 빠졌다가 교육을 4~5년 하면서 그쪽 지역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왜 우리는 안 하느냐?”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강원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종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다.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지점들은 지역의 요구, 지역의 관점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다. 얼마든지 더 넓힐 수도 있고, 지역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면 또 다시 10년 주기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했잖아요. 파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파주에서부터 직접 다시 만들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DMZ 관련해서 저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사실 저는 DMZ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다들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은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주민들, 이장님들 모시고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문화해설사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연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 열망도 느껴지고 이번에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오셔서 많은 느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에 입각해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더 좋겠다.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주 [참석자,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저는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황순주입니다.

오늘 앞에 계신 이장님들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함께 오신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반가운데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의정부에 아예 사무실 분소를 차려 가지고 직원 2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접경지역 안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마을로 저희가 직접 찾아들어가거나, 또는 이장님들과 의논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인데 다음 포럼 때는 아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DMZ 세계유산’이 되는 이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문화활동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와있으니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경도 이사님이 간단히 덧붙여 주시죠.

김경도 [발표자,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이사]

일단 박은진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DMZ 세계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제 상식으로 현재 DMZ는 인위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팩트는 DMZ 일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DMZ, DMZ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가 일단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DMZ 일원 해마루촌이든 황산리 마을이든 다 저는 그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생태적인 현상을 보면 파주와 연천은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아까 제가 발언했을 때도 8부 능선까지 다 헐벗고,

한필원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짧게 해주세요.

김경도 그래서 그런 범위가 일단은 정의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여기 오신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쉽게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박은진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은진 당연히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발표자료에도 DMZ, 그다음에 민통선 지역, 그다음에 그 바깥지역 이렇게 공간을 저는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안과 바깥은 법적인 체계도 다르고, 관리하는 곳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등재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오늘 뚜렷한 결론은 없지만 하나 중요한 소득은, 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세계유산이 단일유산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연속유산이라고 해서 이번에 서원 같은 경우는 9개의 서원이 동시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이것들이 속한 지자체가 광역까지 11개, 여기와 소통하다가 진을 다 뺏니다.

그런데 오늘 마을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씩 입장이 다른 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앞으로 소통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DMZ는 UN사가 관할하고 있고 법적인 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1년 안에 세계유산이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짧으면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오늘 그 좋은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기문화재단 측에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박은진 실장님과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 DMZ 세계유산 등재
기반 조성 사업 7월 포럼**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19년 7월 31일 인쇄

2019년 7월 31일 발행

기획 및 편집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발행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031-231-8522 www.ggcf.or.kr

진행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허미형

디자인/제작

디자인달

이 책에 실린 자료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의 동의 없이
복사 · 전재 · 변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